

## [11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 얼음 깨기

## 감사하고 있나요?

## 교회행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같이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1. \_\_\_\_\_

2. \_\_\_\_\_

3. \_\_\_\_\_

우리 목장 식구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 12월

10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 경배 찬양

##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 선교

## [홍성준 선교사]

## 미국

1. 도시 선교사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하도록
2. 살고 있는 도시의 90%인 인도사람, 이웃의 아프칸 사람, 몽골사람, 콩고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주시도록
3. 이민 와서 무너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 소식

## 한문장 큰 울림

## 1. 전도회

2024년을 위한 새로운 남/여 전도회가 편성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저금통

부활 주일에 나누어 드린 저금통을 다음 주에 가져와주세요.

## 3. 사.교.시

(사실 교사 교육의 시간이 필요해) 교사 세미나 및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1/21, 28, 12/5 => 저녁 7시30분 다윗의 노래 & 12/13(수) 교사 헌신예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는 이를 수 없는  
대안적인 사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1940-)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저자

##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욱기 15장 16절)

세 친구와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저 첫 번째의 논쟁이 계속 반복될 뿐이지요. 엘리바스는 욱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자, 그런 욱의 주장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연륜을 기반으로 비난하고 반박합니다.

### 1\_ 욱에 대한 반박

#### 1) 네가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 (1~6절)

자신들이 열심히 설득하였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지혜가 없다고 말하며 반박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욱의 말은 지혜가 없는 헛소리이며 (2~3절), 욱의 무죄 주장 자체가 죄라는 것이지요 (4~6절) 이는 곧 욱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말의 꼬투리를 잡는 행동입니다.

#### 2)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느냐? (7~16절)

엘리바스는 계속 욱이 지혜자일 수 없음을 다양한 방식들 통해 논증하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연장자이며, 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어 욱의 분노에 찬 말을 책망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깨끗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장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는 것처럼 하는 존재인데(16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신앙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다층적인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견해만 옳은 것으로 주장하면, 독선과 배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교회는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공동체입니다.

[나눔] 다른 사람을 '판단/비난'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맘을 버리고 서로를 품을 수 있을까요?

[결단]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목장 가족들의 삶을 더욱 공감하고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 2\_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사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말로 욱을 훈계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부하는 교만한 자라고 질타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는 자신이 형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는 천사들마저 믿을 수 없고,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리에 더욱 가깝게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반성]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돌아봅니다.

### 3\_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의 대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적절한 말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진정 돕고자 한다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욱에 대한 공감은 온데 간데 없고 비난에 빠져버렸습니다.

####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는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입니다. 죄에 얽매인 답답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생명의 길, 진리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감과 이해가 사라진 가르침은, 비난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 적절한 말에 공감을 담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